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Think-Tank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이 영 소장

2012년은 보육정책인 아이사랑플랜과 유아교육정책인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5세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2013년부터 시행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제정하고 해설서와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교사연수를 지원하며 매우 숨 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를 통해 각계각층의 분들과 유아교육·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표준교육비·보육료 산출과 함께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연구, 영유아 양육 물가 현황 파악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체감하는 육아비용 부담에 대한 연구까지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2013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도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특히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 체계의 구축,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0~5세 보육 및 유아 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공약들이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육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는 새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제안을 할 것이며,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과 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하여 협력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년에 소통, 미래 비전, 통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Think-Tank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원내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통합, 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정책 수요자들과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육아정책 연구기관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기대합니다.